

2025.04.11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미국기업분석

철강/유틸리티 Analyst 이종형 leejh@kiwoom.com

RA 손예빈 yebin.son@kiwoom.com



뉴몬트 (NEM.US)

불안한 시장의 피난처

- 세계 최대의 금 생산 기업, 23년 전세계 금 생산량의 8% 담당
- 금가격, 트럼프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으로 연초 대비 17% 상승
- 동사의 매출 비중 84%가 금, 금 가격 상승 지속시 동사 수혜 기대

금 강세와 함께 금광 채굴 주에 대한 투자 관심 확대

최근 금 가격이 온스당 3,100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 가격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1)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2) 중국 등 국가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가 꼽힌다.

특히 ①최근 동맹국에도 높은 상호 관세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이에 대응한 중국의 보복관세 발표에 따른 미-중 무역분쟁이 미국의 소비지표 둔화와 맞물리면서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미국 및 글로벌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자금의 금에 대한 선호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②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은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이후 금 보유량을 23%이상 늘렸으며, 폴란드도 러-우 전쟁 이후 금 보유량을 2 배 이상 늘린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에도 미국의 대외정책 불확실성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의 대응 수단으로 작용하며 금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불안한 증시에서 뉴몬트가 매력적인 투자처인 이유

동사는 금 매출 비중 84%로 금 가격에 민감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 가격 상승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올해 금 가격은 연초대비 17% 상승하였고, 동사 주가는 동일 기간 3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 S&P 500의 수익률이 -10%를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동사는 불안한 주식시장의 매력적인 피난처가 되고 있다.

한편, 동사는 26년까지 3년간 총 30억달러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주주환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국면에서 동사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유한 종목으로서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

▶ 현재주가 / 목표주가 컨센서스

현재주가('25.04.10): \$50.94

목표주가 컨센서스: \$57.18

▶ 투자의견 컨센서스

매수 55%	보유 45%	매도 0%
--------	--------	-------

Stock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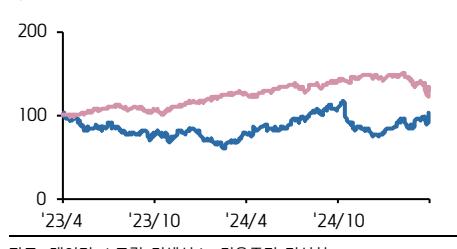
산업분류	금속 & 채광
S&P 500 (4/10)	5,268.05
현재주가/목표주가	50.94 / 57.18
52주 최고/최저 (\$)	58.72 / 36.6
시가총액 (백만\$)	57,422
유통주식 수 (백만)	1,124
일평균거래량 (3M)	11,460,893

Earnings & Valuation

(백만 \$)	FY23	FY24	FY25E	FY26E
매출액	11,812	18,682	18,287	18,234
영업이익	-2,031	4,577	6,940	6,782
OPM(%)	-17.2	24.5	37.9	37.2
순이익	-2,494	3,348	4,337	4,615
EPS	1.6	3.5	3.8	4.1
증가율(%)	-13.0	116.1	10.1	5.8
PER(배)	NULL	12.6	13.3	12.6
PBR(배)	1.6	1.4	1.8	1.6
ROE(%)	5.6	13.5	13.1	11.8
배당수익률(%)	0.0	2.7	2.0	2.2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2M
절대	36.9	20.2	-4.6	30.4
S&P Index	-10.4	-6.2	-8.9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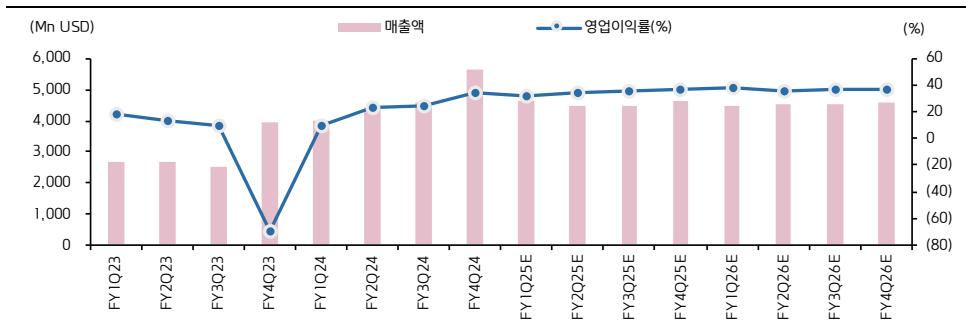
자료: 데이터 스트리밍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

뉴몬트 향후 실적 컨센서스 표

구분	분기 컨센서스					연간 컨센서스		
	(백만 USD)	FY25Q1	YoY 성장률	FY25Q2	YoY 성장률	FY25	YoY 성장률	FY26
매출액	4,646	15.5%	4,463	1.4%	18,250	-2.3%	18,198	-0.3%
영업이익	1,507	276.8%	1,551	49.3%	6,473	43.0%	6,667	3.0%
영업이익률(%)	32.4	22.5	34.8	11.2	35.5	11.2	36.6	1.2
순이익	973	472.6%	934	9.5%	4,048	20.9%	4,264	5.3%
EPS(USD)	0.89	493.3%	0.85	14.2%	3.60	23.4%	3.78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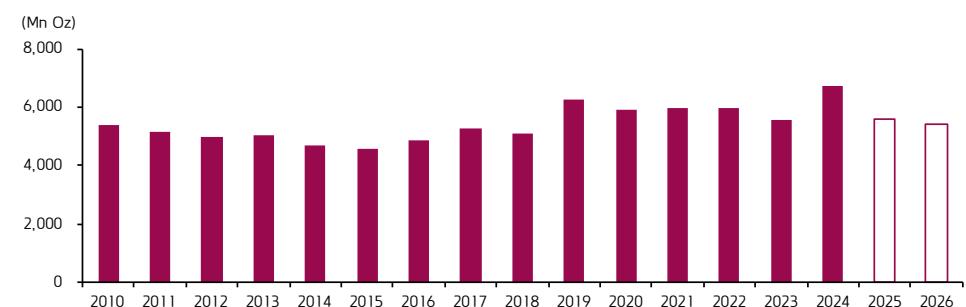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5-04-11 블룸버그 기준

뉴몬트 분기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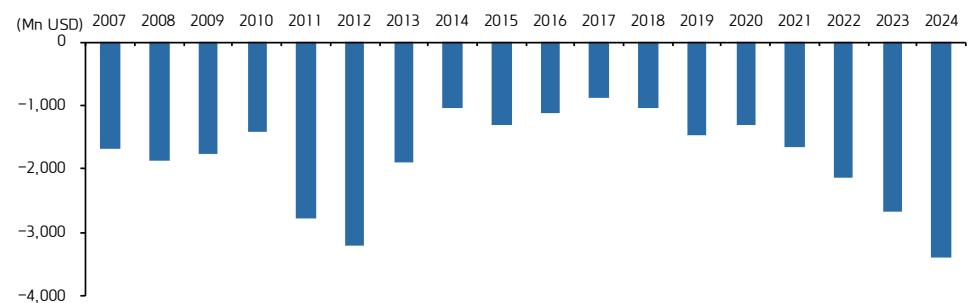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5-04-11 블룸버그 기준

뉴몬트 금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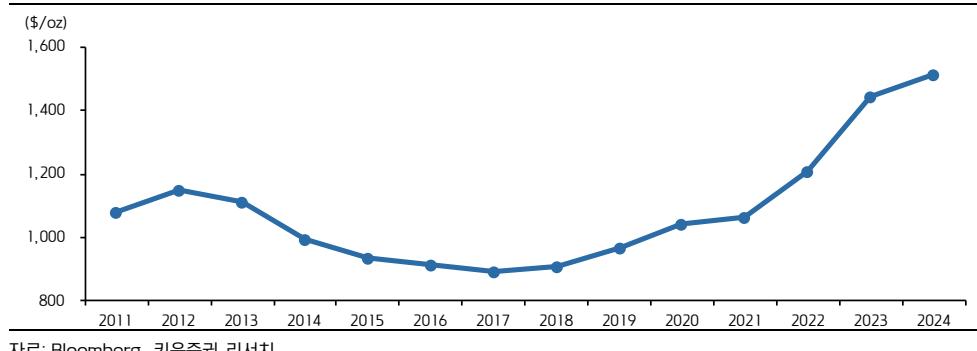
자료: 뉴몬트,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5-04-11 블룸버그 기준

뉴몬트 자본지출 추이



자료: 뉴몬트,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5-04-11 블룸버그 기준

뉴몬트 금 채굴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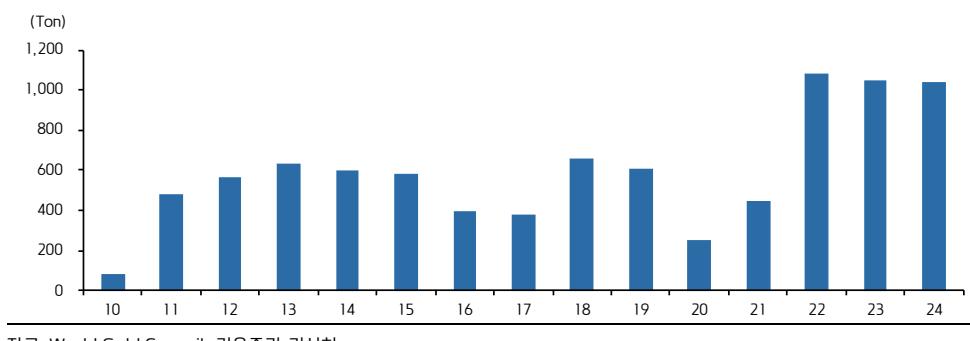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금가격과 뉴몬트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중앙은행 금 매입량 추이



자료: World Gold Council, 키움증권 리서치

금과 달러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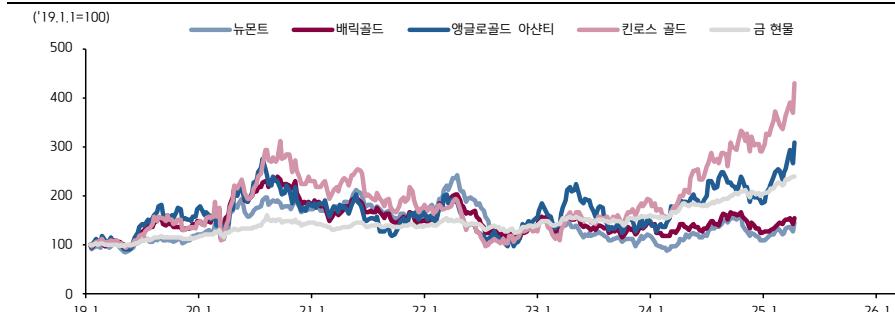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금가격과 미국 국채금리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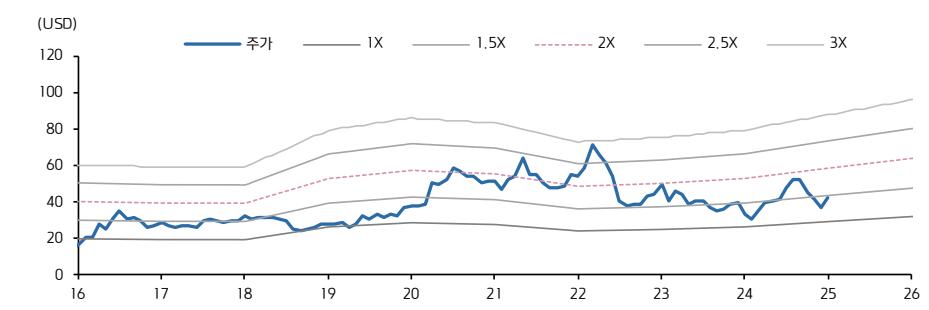
피어그룹 주가 차트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5-04-11 블룸버그 기준

뉴몬트 PBR 밴드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5-04-11 블룸버그 기준

글로벌 광산업 Peer Valuation

	시총 (mm, US\$)	PER		PBR		ROE		영업이익률	
		25E	26E	25E	26E	25E	26E	25E	26E
뉴몬트	57,422	13.2	12.4	1.9	1.6	13.2	12.0	36.9	39.4
바릭 골드	33,210	11.8	10.0	1.4	1.2	11.8	12.4	40.8	43.1
앵글로골드 아산티	19,556	9.4	8.9	3.0	1.9	30.2	27.6	44.3	46.4
킨로스 골드	16,845	14.6	13.9	2.5		19.7	17.1	33.3	34.1
프랑코-네바다	30,312	39.4	33.8	5.1	4.2	12.8	13.4	69.8	72.0
휘턴 프레셔스 메탈스	35,367	38.8	37.9	4.9	4.0	12.7	11.8	65.1	63.5
애그니코 이글 마인스	56,171	20.8	21.0	2.7	2.3	12.9	11.0	46.4	46.5

자료: Bloomberg 컨센서스(4/11 기준),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